취재 요청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 국 공 동 행 동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제목 : [취재요청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수가 17,500원으로 인상, 국회가 해결하라!

□ 담당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 (010-3845-6773)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

"2023년 수가 17,500원으로 인상, 국회가 해결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노동조합, 장애인당사자단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2023년 수가 현실화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공동행동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3. 수가 현실화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정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노동자와 지원기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까지 모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해마다 낮은 수가로 현장의 갈등과 어려움을 부추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매일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

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시설에 입소할 때 장애인은 의료인력보다 활동지원사 파견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시기 필수인력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 등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대책을 내놓아도 현장에서 체감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없고, 서비스 단가가 낮아서 정당한 권리보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5. 공동행동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 바 있고, 2차로 7월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선 공동행동 참여 기관 및 단체를 넘어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 1,000여명의 선언을 통해 마련된 우리의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5,570원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을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1]와 같습니다. 2023년 정부안 15,570원에서 인건비성 경비 15,442원(단가의 99.2%)을 제외한 128(0.8%)원으로 지원 기관은 회의비, 교육비, 책임배상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및 관리책임자와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관 운영이 어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표1] 주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 산출 내역

활동지원사 임금				인건비성 기관 부담금		소계
				4대보험	퇴직충당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 수당	4대보험	퇴직충당금	
9,620원	2,000원	730원	653원	1,355원	1,084원	15,442원

7. 따라서 공동행동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붙임 : 기자회견 진행 순서.

공동행동 요구안(기자회견문 및 요구안 해설자료 당일 배포 예정). 끝.

[붙임1]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
"2023년 수가를 17,500원으로 인상하라"

◯ 진행

■ 사　　회 :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

■ 현장발언

- 현장발언1　문종권 (장애인자립선언 대표)
- 현장발언2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지부장)
- 현장발언3　전덕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 현장발언4　박환수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굿피플 / 굿잡자립생활센터 /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 /
누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부천노인복지센터 / (사)장애인자립선언 /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센터 /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원주지역자활센터 /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서구지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붙임2]

2023년 수가 현실화를 위한 요구

하나.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17,500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법정수당, 기관운영비 전액 반영하라!

하나.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가칭) 장애인활동수가 결정위원회 구성하라!

하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분리 지급하라!

하나. 감염 및 재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활동지원사 임금 보전하라!